

만성흡인의 수술적 치료법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성명훈

만성 흡인은 인두와 후두 부위에서의 조절 부전으로 발생하며, 신경계의 여러 가지 질환 이외에도 의식 저하 자체, 또는 다양한 두개저 부위, 두경부의 수술 치료 후에도 발생한다. 특히 후두는 정상적으로 발성 및 호흡 기능 이외에도 기도를 흡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성 흡인은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재원기간의 증가와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보존적 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는 만성 흡인에 대해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성대 내전술, 윤상인두근 절개술(cricopharyngeal myotomy), 후두 스텐트, 후두 봉합술 등의 방법이 소개되어왔다. 병태생리에 의거한 각 수술 방법의 적응증과 술기를 검토하고, 특히 심각한 만성 흡인의 치료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후두 봉합술의 방법 중 성문하부에서 봉합하는 후두기관 분리술(laryngotracheal separation)의 경험을 검토하고자 한다.